

農業發展 理論研究 (I)

- Fei-Ranis 의 經濟史的 接近方法을 中心으로 -

李 鎬 徹

慶北大學校 農科學 農業經濟學科

An Inquiry into Agricultural Development Theory (1)

- Fei-Ranis's Historical Approach and its Relevance
to Less Developed World. -

Lee, Ho Chol

Dept. of Agric. Economics, Coll. of Agric., Kyungpook Natl. Univ.

Summary

This study attempted to introduce Fei-Ranis's agricultural development theory and discuss its problem for the rural development of less developed world.

Fei-Ranis systematiz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Western European economy on the ground of dualism. They divided the process into 4 stages by the concept of 'mode of operation'. Particularly, they consider agrarian mercantilism as take-off stage and its development were achieved by the increase of trade margin and labor productivity.

Especially, they thought that only agricultural revolution through the diffusion of internal exchange economy and construction of tree-star system can accomplish favorable transition to industrial capitalism.

In order to promote this agricultural development, less developed world must abolish short-run agricultural policy and propel 'learning by the contact' strategy through 'tree-star system' and 'parallel development.' In reality, it was problematic that the contemporary less developed world is trying, in the course of a few decades, to imitate Western European experience with development over the last four centuries.

But Fei-Ranis ignored qualitative aspect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by tree-star system and also it is criticized that they considered agricultural development process of less developed world follows only that of Western European classical process.

I. 緒 論

농업발전이란 흔히 농업생산력의 획기적인 증진을 통한 실질소득 상승현상으로 지칭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 이는 무엇보다 전통적인 생계농업에서 산업자본을 기반으로 한 비농업중심의 경제로의 구조적 변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였다는 것이 이미 경제사를 통하여 실증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변혁과정은 서유럽 경제에서는 15세기 이후 매우 오랜기간동안 서서히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오늘날 저개발국들의 경우 이는 불과 몇 십년래의 문제로 등장하였다는 차이점을 갖을 따름이다. 그러한 사정은 결코 지금처럼의 일면적·총계적 계량분석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각성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서유럽 경제사”에서의 성과를 통하여 오늘날의 농업발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시도들을 그동안 초래하여 왔었다.

John C. H. Fei 와 Gustav Ranis 는 오늘날 농업발전 이론의 정립을 위해서 무시할 수 없는 커다란 공헌을 제공 하였다.¹⁾ 그들의 초기 공동연구는 1961년에 발표 되었는데 이는 이른바 Fei - Ranis 모델이란 이름으로 동태적 이중구조주의(dynamic dualism) 이론을 대표하는 이론이 되었다.²⁾ 이러한 초기 연구를 기초로 Fei - Ranis 는 1500년대 이후의 근대 서유럽 경제를 표본으로 하여 경제발전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정기 위한 모형정립을 시도하였다. 1969년에 발표된 이 논문³⁾은 근대 서유럽 경제사를 농업봉건주의·농업중상주의·산업자본주의 및 기술적 자본주의의 네단계로 구분하고, 여기에서 일반화된

가설을 저개발국의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체계적으로 제시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들은 경제의 성장이란 복합된 현상을 Harrod-Domar 적인 자본 및 자본축적의 생산적 의미 뿐 아니라 다양한 성장과정에서의 경제구조 및 사회운용양식의 변화를 고찰하려 하였으며, 여기에는 S. Kuznets 의 연구로부터 시사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⁴⁾

이 연구는 먼저 Fei - Ranis 의 위 논문을 기초로 하여 그들 특유의 이중구조주의적 역사적 관점과 농업발전에 대한 구도를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이 연구가 갖는 문제의식은 대체로 Fei - Ranis 의 경제사 인식이 얼마나 엄밀한 사실에 근거 하였으며, 그들의 시대구분 및 그 모형화는 과연 저개발국 개발을 위해서 올바른 것일까 하는 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사실의 검증은 비록 충분하지는 않으나 이모형을 근거로 저개발국 경제발전 전략을 세우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를 진단체 하여주는 커다란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II. Fei - Ranis 의 歷史的 觀點과 農業發展理論

Fei - Ranis 는 그들 연구를 위한 시대구분을 선행된 제연구의 경제사상사적 탐구를 통하여 전술한 바와같이, 농업봉건주의(Agrarian Feudalism, 1500년 이전), 농업중상주의(Mercantile Agrarianism, 1500 ~ 1750), 산업자본주의(Industrial Capitalism, 1750 ~ 1914), 그리고 기술적 자본주의(Technocratic Capitalism, 1915년 이후)로 나누었다.⁵⁾ 각각의 시대들은 각각 그들 나름의 자본

- 1) Yujiro Hayami & V. W. Ruttan, 'Agricultural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Chapter 2, Agriculture in Economic Development Theories.' pp20~24 (The Johns Hopkins Press, Baltimore and London, 1972)
- 2) Gustav Ranis & John C. H. Fei, 'A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LI, September, 1961)
- 3) Gustav Ranis & John C. H. Fei, 'Economic Development in Historical Perspectiv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LIX, No. 2, May, 1969.)
- 4) Simon Kuznets, 'Modern Economic Growth ; Rate, Structure and Spread.' (Yale Univ. Press, 1966)
- 5) Gustav Ranis & John C. H. Fei, 'Economic Development in Historical Perspective.' pp386~387

및 자본축적의 시대적 특성과, 그 특유의 경제기구 및 경제사상을 가졌을 뿐 아니라, 한 단계의 성장은 곧 다음 단계로의 발전에 중요한 밑받침을 하였다고 인식되었다. 그들은 자본의 생산적이며 조직적인 참다운 의미는 무엇보다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 있으며, 실제로 한단계에서 다음단계로 경제가 바뀔 때마다 노동과 자본의 관계는 변한다고 보았다.* 이른바 각각의 발전단계는 특정의 상품 및 생산양식 그리고 축적과정에서 기능하는 조직관계(organizational relationship)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었다.

1. 農業封建主義에서 農業重商主義로 (1500~1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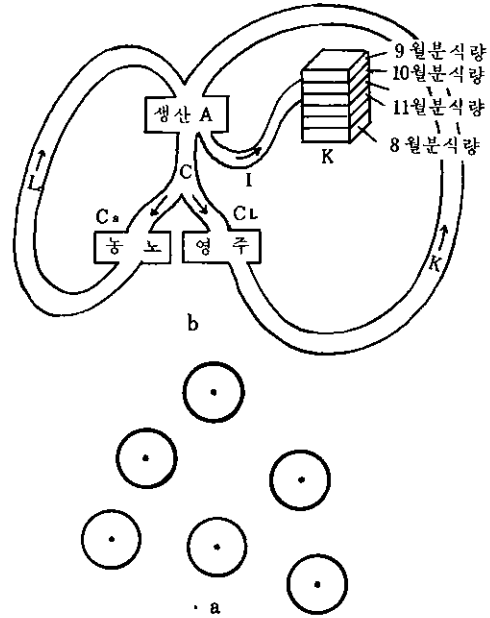
1) 農業封建主義 (Agrarian Feudalism, Simple Agrarianism)⁶⁾

이 단계에서는 외부와의 무역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정착된 농업생산이 지배적이었으며, 원칙적으로 지역 내에서는 자급 자족을 유지하였지만 아직 국민경제적 체계는 이루지 못하였다. 정치적 법제적 의미에서는 봉건영주와 농노의 관계에서 비롯된 봉건주의가 유지되었다. <그림 1-a>

자본축적물은 임금기금(wage fund)의 가장 순수한 형태인 「농산물 채고량」이었는데, 농업생산의 계절성과 식량소비의 무계절성 때문에 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 단계에서의 경제생활은 <그림 1-b>처럼 하나의 생산부문과 두개의 소비부문(영주가계와 농노가계)으로 나누어진다. 총산출물(A)은 소비(C)되거나, 투자(I)되어 자본축적을 이룬다.

자본축적물은 12개월분의 식량으로 쪼개어진다. 여기에서 농노는 노동(L)을 제공하고 영주는 자본(K)을 제공한다. 영주의 권력은



<그림 1> 농업봉건주의의 경제구조

봉건사회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며, 이러한 구도는 이미 Quesney의 경제표 (Tableau Economique)를 중심으로 이미 중농학파(physiocrats)들에 의해서 이론화 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노동력을 육성하는 것이 바로 자본을 증식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Fei-Ranis의 다음식에서 설명된다.*

$$K = \theta L$$

- K : 자본축적량
- L : 인구
- θ : 생산기와 소비기 간의 배분율을 나타내는 「배분계수」

$$(1) - I/L = \frac{dk}{dt} / L = \theta \eta_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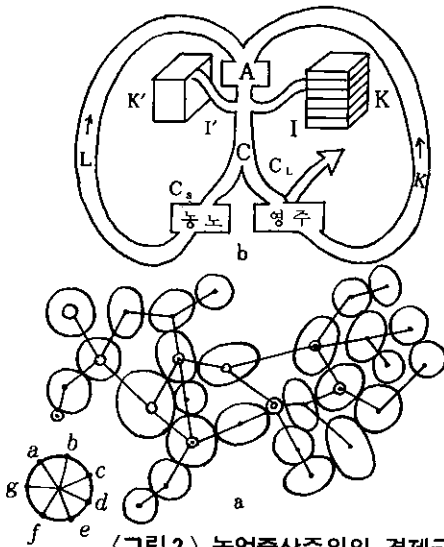
- η_L : 인구증가율
- t : 시간

6) Gustav Ranis & John C. H. Fei, 'ibid'. pp387~388
 7) Gustav Ranis & John C. H. Fei, 'ibid'. pp. 388~390
 8) Gustav Ranis & John C. H. Fei, 'ibid'. p389
 Quesney 를 위한 중농학파의 경제사상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것. E. K. Hunt. 'History of Economic Thought; A Critical Perspective,' 'Ch2 Economic ideas before Adam Smith' pp19~34(Wadsworth Publishing Co. 1979)
 9) Gustav Ranis & John C. H. Fei, 'ibid'. p390

또, 일인당 투자 I/L 는 인구증가율과 비례하므로 성장은 바로 인구의 압박에 의한 것이며, 토지공급이 또한 무한하여 저축 및 투자는 자동적, 관습적 거의 준의식적 이루어졌다고 주장되었다.¹⁰⁾

2) 農業重商主義 (Mercantile Agrarianism)¹¹⁾

농업봉진주의 사회의 발전 및 진보는 지역 간 국가간의 무역 및 상업활동의 확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주요한 생산형태는 아직도 농업이었지만, 상업 및 화폐경제의 농촌침투는 경제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국민경제를 형성하였고 교역범위를 확대시켜 나갔었다. 이에 따라 농업중상주의는 'tree-star' 체제로 특징지워지는 새로운 하부구조를 형성하였다.



〈그림 2〉 농업중상주의의 경제구조

이 「tree-star」 체제는 〈그림 2-a〉와 같이 중심부(nodes or vertices)와 주변부(edg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는 증세말기의 도시, 소도시 및 촌락등의 인간 정착사회를 말하며 후자는 이들을 연결하는 수송 및 전달매개를 위해 존재하였다.

농업중상주의의 구조적 특징은 농업생산에서의 단작형태의 탈피와 농업 및 비농업의 공존에 있는데, 그 발전은 상업도시들의 tree-star 체제로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 그에 따라 자본개념도 임금기금으로서의 식량의 재고량(K)뿐 아니라, 상업자본 축적량이란 또 다른 가공된 농업생산물의 재고량(K')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 농업경제의 운용양식(mode of operation)은 〈그림 2-b〉에 나타난 것처럼 총농업생산(A)은 3부분으로 분리되었다. 즉, 소비(C)와 임금기금으로서의 투자(I), 그리고 상업자본으로서의 투자(I')가 그것이었다.

자본 K는 농업봉진주의의 그것처럼 생산과 소비기간 사이의 시차를 배우기위한 것이고, 상업자본 K'는 생산자 내에서의 생산기와 소비기간의 불일치 뿐 아니라, 수송기간의 존재 때문에 축적되었다. 즉, K'의 수요는 주로 무역량(T)에 의존하였다. ($K' = \theta T$) 또한 T는 무역마진의 함수이므로, $T = Lq$ 라 할 수 있겠다. (L은 총인구, q는 일인당 무역마진)또한 $q = p - c$ 라고 대략 추계될 수 있다. (즉 p는 일인당 생산량이고, c는 일인당 소비량) 여기에서 $K' = \theta L(p - c)$ 란 함수가 유도되며, 이는 다시 일인당 상업자본투자공식 $I'/L = \theta(p - c)\eta_L$ 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여기에 자본에 대한 전통적인 수요를 더하면 일인당 상업투자는 다음(2) 식과 같다.

$$(2) - I/L = (\theta + \theta(p - c))\eta_L$$

농업중상주의의 성장추진력은 위 식에 의하면 다음 두 가지 측면으로 강조된다. 이른바 이 단계에서의 일인당 투자는 인구증가율(η_L)에 의하여 견인될 뿐만 아니라, 그 성장추진력은 농산물 무역마진($p - c$)의 증가 즉 잉여농산물 생산의 제고에 의하여 떠밀려진다고 그들은 보았던 것이다.

10) 토지부족(land scarcity)이 작물 재배방법의 개량과 기술혁신을 통한 수확체감을 가져오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며, 오히려 토지공급이 무한하다면 수확체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Fei-Ranis는 주장하였음.

11) Gustav Ranis & John C. H. Fei, 'ibid' pp. 390~395

3) 農業重商主義의 累積的 成長 (cumulative growth)

이상에서 Fei-Ranis는 노동생산성(P)과 상업에의 투자(I') 사이의 일정한 교호작용이 있다는 이른바 상업투자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가정 하에서, 상업자본축적은 차례로 무역마진의 증가에 기여한다고 설명하였다. 무역마진의 증대는 자본축적을 급속히 하고 노동생산성 제고를 촉진하는데 이것이 바로 농업중상주의 경제체제의 누적적 성장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농업생산성을 급속히 상승 시킴으로서 농업봉건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농업중상주의 사회로의 발전이 일어났다고 주장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공식화한 것이 다음식(3), (4)이다. 장기 농업생산성의 증가율, dp/dt 은 일인당 상업자본 축적량과 비례하며, 이는 「생산성 고양계수」(productivity enhancement coefficient) j 로 나타낸다.

(3) $-dp/dt = jI/L$ 여기에 (2)식을 응용하면

$$(4)-a) \quad dp/dt = A + Bp$$

$$\text{여기서 } A = j(\theta - \theta'c)\eta,$$

$$\text{그리고 } B = j\theta'\eta,$$

$$b) \quad \eta_p = A/p + B$$

$$c) \quad \eta_p = B \quad (p \rightarrow \infty \text{이므로})$$

장기 농업생산성 성장율($\eta_p = B = j\theta'\eta$)은 항상 정의 값을 가지며 장기적 생산성 고양계수 j 와 비례하였는데, 이는 바로 농업생산성에 자극을 주기 위한 상업자본의 축적범위를 보여준다. 또한 여전히 높은 인구증가율도 농업생산성 제고를 뒷받침하였다. 무역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생산성이 증대되고 지중해 지배적으로 작용하여 오던 생산성의 정체 경향이 역전된다는 주장은 Fei-Ranis의 농업중상주의에 대한 중심적인 가설로 등장하였을 뿐 아니라, 인구증가에 대한 그들의 입

장은 토지부족과 수확체감의 법칙에 기반을 둔 말더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의 고전적인 비관주의(the classical pessimism)에 대한 매우 적절한 반론으로 등장하였다. 경험적으로 우리는 산업혁명 이전에 이미 선행된 영국의 농업혁명(Agricultural Revolution)을 농업중상주의 시대 농업발전의 한 전형으로 예증할 수 있다.¹²⁾ 그러나 여기에서의 논의는 생산성 고양계수(j)와 관련된 효율적인 상업활동이 과연 현실적인 농업발전 현상에 얼마만큼의 자극이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4) 貿易과 農業生産性

농업봉건주의에서 농업중상주의로의 발전은 tree-star 체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형성과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결과하였던 것이다. Fei-Ranis는 A. Smith의 분업론을 중심으로한 이론체계가 곧 바로 이러한 농업중상주의를 의미한다고 보고, A. Smith의 자본개념은 바로 임금기금과 상업자본의 합성이었는데 이는 무역을 증대시키기 위해 분업을 확대하려는 평범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독특하게 해석하였다.¹³⁾

또한 농업중상주의의 발전은 하나의 계급이었던 봉건귀족이 또다른 계급으로서의 농노를 봉건권력(경제외적 강제)으로 통제하던 낡은 경제체제를 보다 우월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경제체제인 자본주의가 서서히 잠식해나감으로써 이룩되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농업중상주의의 말기에 이르면 국민경제의 통제와 조절기능은 토지에 기반을 둔 봉건귀족들보다는 상업자본가들의 손에 집중되었다. 새로운 제도의 조직적인 특징은 경제만을 전담하는 계급에 의한 업무중심적(task-oriented) 접근이 행하여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르주아(bourgeois)적 조직방법은 초기의 무역 및 상업행위의 성장과 관련하여 시도되었

12) Gustav Ranis & John C. H. Fei, 'ibid' p. 393 영국의 농업혁명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金宗炫, '英國産業革命研究', '第二章. 農業革命', pp58~95. (서울대 경제연구소, 1977. 6)

13) Gustav Ranis & John C. H. Fei, 'ibid' p. 393 A. Smith의 경제사상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E. K. Hunt, 'ibid' 'Ch. 3. Adam Smith', pp34~56

는데, 농업부문에서의 그것은 Smith가 지배적인 농업 경제조직으로서 인용한 바 있는 삼분할제도(tripartite division of labor)의 성립이 그것이다.¹⁴⁾

tree-star 체계는 상품의 교환 뿐 아니라 경제, 문화, 사상의 '접촉을 통한 학습'(learning by contact)에 의하여 새로운 영농방법과 함께 비전통적 및 전통적 투입물이 실험되었다. 기술혁신과 농업혁명의 이론적 근거가 여기에 있으며, 특히 농업혁명을 가져온 지속적인 농업기술의 진보는 주로 농업분야의 상호 접촉과 비농업에서의 무역에 의하여 증대되었다.

생산성계수 j의 증대에 크게 기여한 최후의 요인은 바로 초기 민족주의였다. M. Weber가 밝힌바 있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protestant ethic)와 영리정신의 출현과 연결된 그 시대의 활발한 제충이동 과정에서 국가간 교역확대 및 상업화가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며, 새롭게 강조되기 시작한 국민의식은 지역간의 관세장벽을 철폐하였으며,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국가적 무역과 금융기관 및 「코뮤니케이션」망이 건설되었다. tree-star 체계는 물질적인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뿐 아니라 법적 제도적 변화도 초래하였다.

2. 農業重商主義에서 産業資本主義 (Industrial Capitalism)로

중상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의 이행은 18~19세기에 일어났는데 이는 인류역사에 유례 없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는 무엇보다 유

사이래 인류가 계속하여온 농업시대(Agrarian Age)의 종말이란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또한 산업혁명과 함께 근대적 성장이 출발되었으며, 급속한 구조전환 뿐 아니라 일인당 소득 및 노동생산성의 획기적인 제고가 특징적으로 전개되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그 맹아가 나타나고 있었다.

산업자본주의로의 이행유형과 그 자본형태, 조직방법 및 성장양상에 대하여 Fei-Ranis는 다음과 같이 그들 특유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1) 二重構造(dualistic structure)의 成立

산업자본주의의 도래와 함께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무엇보다 농업과 비농업(공업)의 공존으로 특징 지워지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이중구조가 성립하였다는 점이었다.¹⁵⁾ 이러한 이중구조는 초기의 농산물 무역에서의 그것과는 이미 다른 것이었다. 즉 봉건적 속박에서 해방된 수 많은 농노들이 노동자 계급으로 탈바꿈하여 새로운 산업자본과 결합함으로써 '상업자본' 수준의 단순한 '노동력의 이동' 정도를 넘는 새로운 생산적 의미를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생산양식과 경제조직을 갖게 된 것이었다. 이와같이 근대적인 비농업부문과 전근대적인 농업부문에 의해 성립된 이중구조적 경제발전애 대해서 Fei-Ranis는 이미 일본의 근대화를 모형으로 한 초기의 연구에서 상세하게 분석한 바 있다.¹⁶⁾

이러한 이중구조는 농업중상주의의 자연적

14) 영국농업은 농업혁명 및 Enclosure Movement란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적 토지보유관계가 점차 근대적인 대규모 사적 토지소유관계로 이행하였다. 이치범 16세기에서 비롯되어 18세기에 어느정도 마무리된 대토지 소유제는 자본가적 대농장 경영과 결부되어 새로운 합리적 농업경영이 추구되었는데, 그에 따라 '근대적 지주' '자본가적 차지농' '농업노동자'로 농민층이 분해됨으로써 근대적 농업조직을 확립하였던 것이다. (金宗炫, 經濟史, pp 231~233, 經文社, 1979)

15) M.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1906) 참조.

16) 이러한 이중구조(dualistic structure)의 존재는 J. H. Boeke에 의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그 뒤 Higgin, H. Myint 등의 연구를 거쳐 이 이론은 Fei-Ranis의 동태적 이중구조주의 형성에 커다란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이중구조는 식민지를 경험한 후진경제의 특징으로 흔히 개념화 되고 있는데 비해, Fei-Ranis는 이를 산업자본주의로의 이행결과 나타나는 보편적 경제현상이라는 독특한 관점을 내세우고 있다. (Gerald M. Meier, 'Leading issues in Economic Development.' 'Ch. 3 Dualistic Development', pp 125~166 참조)

17) Gustav Ranis & John C. H. Fei, 'A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인 성장의 결과였다. 또한 이 시대 서유럽 경제에서의 농업생산력의 획기적인 성장은 수축되고 있는 농업부문으로 하여금 팽창되고 있던 도시 비농업 부문에의 물질적 공급을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그와같은 농업잉여 (agricultural surplus) 와 농업생산성의 급속한 증대는 농업중상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의 이행의 핵심인 노동력의 재분배를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이제 농업생산성의 증가분은 바로 도시로 방사되었으며, 도시의 존재는 또한 농촌 인구들에게는 새로운 환경 및 생활의 제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한 노동의 재분배, 농업잉여의 공업부문으로의 유출, 그리고 산업자본의 축적 등은 함께 초기 산업자본주의의 움직임에 있어 기본적인 현상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2) 産業資本主義에서의 資本의 狀態

Fei-Ranis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발전단계의 변화에 따라 자본의 상태 (nature of capital)는 그 구조적 의미 및 생산적 내용, 모두가 변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산업자본주의 단계에서의 자본의 상태도 여러 고전학과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던 초기의 것에서부터 서서히 변하였다고 주장한다. 고전학과 이후 학자들도 질적, 양적으로 생산력의 항구적이고 결정적인 원천이었던 자본에 몰두하였다. 이른바 초기의 산업자본주의 조직체계에 있어서와는 달리 노동조합의 성장과 노동자들의 정치참여 확대, 새로운 경영자층의 출현이 이끈 경영과 자본의 분리현상, 그리고 공공사업가의 출현과 정부의 기업 의사결정에의 참여확대 경향등은 그러한 자본주의적 조직체계를 개선하였다고 그들은 보았다.

그러한 계급구조의 변화에 따라 인간자본 (human capital)에의 투자와 연구의 제도화

는 이제 그 중요성이 공·사의 양면에서 증대되었다. 그 결과 20세기에서의 축적된 응용과학지식(기술혁신과 교육)은 지금까지 중요한 성장원천이었던 자본을 대체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이미 Thorstein Veblen, J. K. Galbraith 등 제도학과 학자들이¹⁸⁾ 예견한 기술주의적 자본주의 (Technocratic Capitalism)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3. 低開發國들을 위한 교훈의 제시

이미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같이 저개발국들은 서로 간에도 상당한 문화적, 경제적 차이를 지니고 있어왔다. 따라서 서유럽 근대 경제사에서의 경험이 과연 이들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는가가 사실 문제이다. Fei-Ranis는 다음 두 측면에서 저개발국들을 위한 그들 나름의 교훈을 제시하였다.

1) 並進的 發展 (parallel development)

오늘날 경제발전 과정에 있는 저개발국들의 문제에 도움이 될 서유럽 경제사에서의 경험은 무엇보다 농업중상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의 이행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거의 모든 저개발국들은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근대적인 성장을 성취해야할 문제에 직면하였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식민지하에서의 저개발국들은 정체된 전통적 농업부문과 상업화된 근대적인 고립부문과의 정체적인 이중구조를 이룬 채 내포적 성장(enclave growth)¹⁹⁾만을 되풀이 해왔던 것이다.

이들 구조의 가장 심각한 취약점은 사회간접자본이 서구 식민주의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점이며 여전히 지배적인 산업은 전근대적인

18) Thorstein Veblen, 'The theory of Leisure Class.'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3) J. K. Galbraith, 'The Age of Uncertainty.'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London, 1977)

19) 내포적성장(enclave growth)은 수출을 위해 생산하는 고생산성 부문과 국내시장을 위해 생산하는 저생산성 부문이 공존하는 경제구조하에서, 후자의 부문은 정체된 채 전자의 부문만이 해외 수요에 반응하여 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Higgin에 의하면 이러한 내포적 이중구조는 근대부문과 전근대 부문의 기술격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되고 있다. (Yujiro Hayami & V. W. Ruttan, 'ibid' pp17~19)

농업이었다. 자본과 투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주로 내포 경제부문(Enclave)을 위해서 값싼 노동력을 획득하고 상대적으로 국내의 농업경제와의 적은 접촉을 가지면서 값싼 원료와 광물의 유출을 위해서만 기능할 뿐이었다. 결국 서구 식민주의가 후진국들의 산업 자본주의로서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것이라고 Fei-Ranis는 단정 하였다.²⁰⁾

이상에서 저개발국들의 발전문제는 무엇보다 취약한 사회 간접자본과 조직을 가진 선진적으로 허약한 전통적 농업과 관련 되었다고 Fei-Ranis는 진단하고, 서유럽 경제사에서 배운 교훈 중 'tree - star 체제의 건설'은 특히 이들 국가들의 농업근대화 정책에서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른바 외부적으로 농업은 근대화된 비농업 부문과 더욱 긴밀히 접촉되어야 하며, 내부적으로도 농민은 지역사회에서 서로 깊이 접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¹⁾ 흔히 저개발국 정부들에 의해 비봉책으로 취해지는 농업 경시적 제정책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제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²²⁾ 올바른 경제발전의 길이란 이러한 시각에서 볼때 새로이 성장하는 공업과 더불어 지급껏 낙후되어온 농업부문도 이제 지난날의 낡은 이중구조를 떨쳐버리고 함께 병진적 발전(농공병진)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는 점이다.

2) 時間的 次元(time dimension)

그렇지만 대부분의 저개발국들이 갖는 경제발전 전략상의 문제는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서유럽의 경험을 단지 수십년에 헤치워야 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서유럽의 경험은 어떻게 tree-star 체제를 조직하며 시간단축을 해야하는가에는 도움을 줄 수가 없으며

로, 결국 농업근대화 문제는 저개발국들만이 갖는 새로운 과제일 따름이다.

전통적인 농업의 근대화가 몇개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들 만으로 충분히 압축될 수 있으며, tree-star 체제의 효율화가 정부의 단기적인 몇몇 지역사회개발 및 농촌지도정책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는 극히 의심스럽다. 농업발전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의 행정기관 스스로가 이러한 사정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지금까지 도시의 내포경제 부문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행정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³⁾ 그러나 서유럽의 경험에서 볼때 가장 중요한 역사적 교훈은 농업근대화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시간을 끄는(time-consuming) 과정이란 점이라고 그들은 강조한다.

III. 經濟史 認識과 低開發國 開發 戰略

앞에서 우리는 Fei-Ranis의 입장에서 본 근대 서유럽 경제사의 전개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저개발국 개발전략을 소개 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경제사 인식에 기반이된 기본자료와 참고문헌을 상세히 밝히지 않았으나 그들의 연구가 중상주의, 중농주의 학파를 위시하여 고전학과, 제도학과들에 대해서까지 언급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이차적 자료에 의한 경제사상사적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는 듯 하다.

한편 이들의 경제사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오늘날 흔히 근대경제학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 식민지문제, 즉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하여 준엄한 비판의식을 가졌다는 점에

20) Gustav Ranis & John C. H. Fei, 'ibid' p 397

21) 이러한 원칙은 여타조건이 일정하다고 한다면(ceteris paribus) 대부분의 인구가 전근대적 농민문화의 수혜자일 뿐 아니라, 동일적이며 도지에 잘 집중되어 있는 한국, 대만, 일본과 같은 작은국가가 취약한 농민문화 유산을 가진 적은 인구의 넓은 국토를 가진 국가들보다 농업근대화를 더욱 잘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증명될 수 있다고 Fei-Ranis는 주장하였다. (G. Ranis & J. C. H. Fei, 'ibid' p 398)

22) Fei-Ranis의 이러한 견해는 다음 논문에도 누차 강조되고 있다. John C. H. Fei and Gustav Ranis, "A model of Growth and Employment in the Open Dualistic Economy; The cases of Korea and Taiwan." (Growth and employment in Korea and Taiwan, 1977)

23) 중앙정부의 관료가 농촌문제를 취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식민지적 경험을 가진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이는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들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경험은 모두가 그 지역의 이중구조 중에서 특히 도시의 내포부문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Gustav Ranis and John C. H. Fei, 'ibid' p 399)

서 귀중하게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그들 연구의 문제점을 특히 근대경제사학에서의 성과들을 제대로 수용하였는지의 여부와 저개발국 개발전략으로서의 그들 이론의 타당성 여부의 두가지 측면에서만 간단하게 살펴서 논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1. 時代區分 및 用語法 (terminology)

Fei-Ranis 는 경제발전을 경제성장 단계론 (growth stage theory)적 입장에서 낮은 단계의 경제가 보다 높은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그들은 경제발전을 지배적 산업이 농업이었던 전근대적 경제구조가 산업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전진하게 성취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러한 입장에서 그들은 서유럽 근대경제사를 중세 농업봉건주의, 과도기로서의 농업증상주의, 그리고 그 이후의 산업자본주의로 구분하고 그러한 각각의 발전단계들은 모두 저마다의 경제 운용양식과 자본의 의미 및 형태를 갖는다고 생각하였다.

무엇보다 경제발전을 역사적인 과정으로 보고 그 각 단계마다의 경제법칙이 서로 다르다는 그들의 주장은 경제의 발전을 동질적인 경제구조의 단순한 외면적 확대과정으로만 보아온 지금까지의 경제발전 이론을 뛰어넘는 것이며 그런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이른바 각 발전단계들은 그 나름대로의 노동과 자본의 관계, 자본 및 자본축적의 특성, 상품 및 생산양식(mode of production), 그리고 경제조직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보았다. 그러나 Fei-Ranis 는 이러한 지표 외에도 운용양식(mode of operation)이란 그들 특유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 개념은 앞

서 <그림 1, 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오스트리아학과(Austrian economist)적 자본개념에 의거한 것으로서, 변화하는 노동과 자본과의 제관계를 의미한다고 정의 되었다.²⁴⁾ 그러한 “운용양식”이란 개념의 설정은 비록 그들 독창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본을 전제로한 개념 (특히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자본에 의한 노동의 개선 및 노동생산성 제고를 의미)이란 점에서 그 한계가 보인다. 무엇보다 산업자본주의 단계 이후의 경제발전 원동력은 자본 또는 자본 축적이었다는 점은 명백하지만 봉건주의 단계의 경제발전은 그와는 다른 봉건제의 고유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²⁵⁾

또한 현실에 있어 봉건적 생산양식의 분해는 그속에서 성장해 나온 새로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의 대항관계속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보다는 낡은 생산양식의 자기 모순에 의한 해체와 독립자영농민층 (Yeomanry)을 위시한 소생산자층의 계층상승 및 해체의 결과였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이들 소생산자층의 양극분화에 의하여 비로소 본격적으로 개화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수단은 노동에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그 생산성은 자본의 생산성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반면, 봉건사회에서의 생산수단은 생산자와 결합되었을 뿐 아니라 그 생산의 발전은 직접생산자 자신의 생산성 상승에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서로 다른 원리를 가진 사회의 발전을 굳이 산업자본주의 이후에 설정된 자본개념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근대 서유럽 경제사를 구분지우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고전학파이래 사용되어온 개념으로서의 생산

24) Gustav Ranis and J. C. H. Fei, 'ibid' p 387

25) 이러한 자본제와 봉건제 발전의 고유원리에 대한 탐구는 이미 高橋幸八郎 (Takahashi)에 의해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각각 달리 개념화 되었다. 「Thus, just as the study of Capital starts with analysis of Commodities, and goes on to show the development of the categories Commodity → Money → Capital, so likewise when analyzing feudal land property obviously the method can't be restricted to a mere historical narration, but must go on to deal with the nature of the laws of feudal society.」 이러한 논리구조에 따라 그는 봉건적 생산양식의 기준인 토지소유에 대한 분석이 「Hufe → Gemeinde → Grundherrschaft」라는 논리전개를 갖는다고 봄으로써 자본주의 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자본의 분석이 「Commodity → Money → Capital」라는 범주전개를 갖는 것과 대비시켰던 것이다. (Kohachiro Takahashi, "A Contribution to the Discussion" M. Dobb, ed, 'ibid' p 72~73)

양식(mode of production)이나 P. Sweezy가 제시한 생산체제(system of production)란 개념처럼 적어도 체계화된 기준으로 재조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Fei-Ranis는 그들이 세가지로 나눈 네 경제발전 단계의 용어법에서 매우 독자적이었다. 그들은 경제발전 단계로서의 농업주의를 다시 농업봉건주의(단순 농업주의), 농업중상주의로 구분하였다. 실제에 있어 이 시대는 11~13세기의 호황과 급속한 인구 및 경작지 증가가, 14~15세기의 이른바 봉건적 위기(토지의 폐기, 경지면적의 수축, 농공생산의 저하, 도시 및 국제무역의 쇠퇴, 반봉건적 농민봉기)를 맞아 15세기의 마지막 4분기에 이르면 농노제 및 무역의 해체와 화폐지대로의 대체(봉건 지대물의 일반적인 저하, 대부분의 토지의 자유로운 토지 소유로의 전환)가 수행되고 농민층 내부에서 점차 발전되고 있는 상품생산단에 의하여 농민층의 분화가 가속되고 자본제적 차지 농업경영이 점차 유리해져 나간 시기이었다.²⁶⁾ 또한 이들 두 단계의 농업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1850~1914)로의 이행에는 산업혁명(1760~1830) 및 시민혁명이란 경과점이, 산업 자본주의에서 기술주의적 자본주의 사이에는 제 1차 세계대전(1914~1919)이란 경과점이 설정됨으로서 독점 자본주의 문제를 간파하였다. 대체로 이들의 시대구분은 그 시대의 역사적 실증적 사실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이 설정한 시대에 대한 용어법(농업봉건주의 → 농업 중상주의 → 산업 자본주의)은 그들이 여전히 독일 역사학파의 List에서 창시되고 Fisher-Clark에 의해 널리 사용되어온 산업분화에 의한 경제발전단계 설정방식을²⁷⁾ 혼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 산업 자본주의로의 이행과 그 성격

Fei-Ranis의 네 발전단계에서 특히 농업발전 이론정립을 위해 가장 많은 분석이 가해진 시대는 다름아닌 농업 중상주의였다. 이른바 이 시기를 그들은 이행기로 보았으므로 이 시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M. Dobb의 '자본주의 발전의 연구'를 제기로한 국제적인 '봉건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 논쟁'의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소 시대적 차이는 있지만 노동지대가 화폐지대로 전환하고 농노제가 사실상 소멸한 14세기에서 진정한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16세기(이른바 Edward 3세에서 Elizabeth까지의 200년)까지의 시대성격에 대한 이들 논쟁의 성과를 도입하는 일은 이를 위해서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중상주의에 대한 여러 경제학자들의 경제학설사적 연구들도 이러한 검토를 위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

1) 이행기로서의 농업중상주의

Fei-Ranis에 의하면 봉건경제의 발전은 무역 및 상업의 확대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성립된 농업중상주의는 화폐경제의 농촌 침투에 의한 tree-star 체계의 구축, 농업 생산에서의 단작형 탈피와 상업의 부활등의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또한 산업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농업중상주의 발전에 따른 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며, 그 핵심도 바로 상업을 통한 무역마진의 확대와 그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증대 및 그것을 가능케한 tree-star 체계의 구축이었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중상주의란 절대주의적 국민국가가 추구한 경제정책과 그것을 뒷받침한 사상·이론들을 총칭하는 이른바 경제학사적 개념이다.²⁸⁾ 따라서 Adam Smith가 처음으로 이를 비판한 이래 수 많은 해석들이 여기에 추가 되었지만 (List, Schmoller, Lipson, Heckscher), 또한 상당수의 학자들은 이미 이 개념을 폐기하였

26) 高橋幸八郎, '總說' '移行論爭と具體的内容' pp26~52 (大塚久雄等編著, 西洋經濟史講座Ⅲ, 岩波書店 1960 pp26~52)

27) Yujiro Hayami & V.W. Ruttan, 'ibid', 'Structural transformation' (Fisher-Clark) pp12~13 Allan. G. B. Fisher, 'Economic Progress and Social Security' (London; Macmillan, 1945)

28) 金宗炫, '經濟史' 제14장 重商主義와 유럽諸國의 經濟發展 pp 176~179 (經文社, 1979)

을 뿐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공통의 개념은 성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²⁹⁾

그렇지만 중상주의는 중금주의에 기초를 두고 그 실현방법으로서의 무역차액 및 거래차액 주의를 추구하며 국민경제의 형성과 그 발전을 지향한 경제정책 체계를 의미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Fei-Ranis의 이론은 일단 타당한 것으로 볼수는 있다. 그러나 산업자본주의로의 이행의 제과정을 명확히 밝힘으로서 오늘날의 후진제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의 경제사적 분석이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 농업 중상주의의 경제사적 성격

흔히 중상주의(정치적으로는 절대왕정)의 역사적 성격을 상업자본주의(Merchant Capitalism)로 보는 견해가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 개념은 생산부문보다 유통부문에 주된 관심을 둬으로써 그 경계를 특징 지우는 생산양식을 구명해 낼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 되었다.

M. Dobb에 의하면 「에드워드 3세와 엘리자베드를 구분하는 200년간」은 그 특징에 있어 확실히 이행기였으며, 그리고 「봉건적 생산양식의 붕괴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전개되기 이전에 이미 상당히 진전된 단계에 도달해 있었고, 이 붕괴는 구체제의 자궁안에서 새로운 생산양식의 성장과 어떠한 밀접한 관련아래 진행되지는 않았다」³⁰⁾고 주장되었던 것이다. 또한 P.M. Sweezy는 그러한 논리를 발전시켜, 이 이행적인 형태는 「우위를 위해 경쟁하는 두 체제에서 나온 요소들의 혼합」이므로 이 체제를 전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체제(pre-capitalist commodity product)라고 이름지웠던 것이다.³¹⁾ 따라서 이 시기는 봉

건적이기도 자본주의적이기도 않는 자립체제(viable system)였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그러나 비록 이 시대 농민이 농노제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봉건적 토지소유 관계의 표현인 화폐지대에 의해 짐치워졌고 통제받았으며, 화폐지대가 비록 잉여노동의 점차 작은 부분을 통제하기 시작하였지만 농민들은 봉건제의 굴레를 아직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화폐지대도 본질상 봉건지대의 일 유형일 뿐 아니라 직접생산자는 여전히 명목상의 봉건적 토지 소유자인 영주에게 경제외적 강제에 의해 이를 지불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논쟁은 이 시대의 기본성격을 봉건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Dobb, C. Hill, R. Hilton, 高橋幸八郎)³²⁾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서 봉건지대를 거부해야 했던 농민층과 생산이윤에 가해지는 계약을 제거해야 했던 산업자본가들은 필연적으로 산업혁명, 시민혁명을 통하여 봉건세력에 대항하여야 했다. 따라서 적어도 농업 중상주의의 경제사적 기본성격은 여전히 남은 봉건제적이었던 것으로 우선 파악되며, 이러한 사정에 따라 봉건사회의 해체 및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있어 원격지무역 및 상업의 역할에 대한 Fei-Ranis의 유통주의적 주장은 재고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산업자본주의로의 이행과 상업의 역할

서유럽 봉건제의 해체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은 서유럽 봉건제가 주어진 생산관계를 유지할려는 강한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그의 해체는 단지 어떠한 외부적인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바로 ‘상업 및 교환경제(시장을 위한 생산체제)’이었다고 보아왔다. (W. Sombart, H. Pirrenne, Sweezy)³³⁾ 또한 이러한 외부적 힘은 봉건적 형태인

29) 金宗炫, '上書' pp 176~184

30) Maurice Dobb,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p20 (Routledge and Kegan Paul, London, 1945.)

31) Paul M. Sweezy, 'A Critique' p14(M. Dobb, ed. The transition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A Symposium by M. Dobb, P. M. Sweezy, H. K. Takahashi, Radney Hilton and Christopher Hill, 1954)

32) M. Dobb. ed. 'ibid' 참조할것.

33) Paul M. Sweezy. 'ibid' pp 3~20.

행상이나 국지적 상업이 아닌 원격지 무역 (long distance trade) 이어야 하였다. Fei-Ranis에 있어서도 그러한 무역마진의 확대는 자본축적율을 급속히 하고 노동 생산성의 성장을 강행하며 농업생산성의 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원격지 무역의 성장이 바로 농업 봉건주의에서 농업중상주의로, 농업중상주의에서 산업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성취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동인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15·16세기 동유럽에서 있는 봉건반동으로서의 재판농노제 (the second-serfdom)를 설명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실은 이미 M. Postan이나 E. A. Kosminsky, 大塚久雄들의 실증적 연구에 의해서 뒷받침 되었다.³⁴⁾

이른바 중요한 것은 농민경제에 있어서의 교환의 발달은 여하한 화폐지대를 발전시킨 반면 영주경제에 있어서의 교환경제의 발달은 오히려 무역의 증대를 초래하였던 사실이다. 따라서 서유럽 경제에서의 봉건경제의 해체가 상업(원격지 무역)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상 어느 곳이든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상업 및 교환경제가 밀로 부터의 농민성장 즉, 농민경제의 상품경제화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한 봉건경제를 해체하는 동인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되었던 것이다.

4) Tree-Star 체제와 국민경제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지금까지 일국사적 논의를 떠나 '세계자본주의'란 시각이 등장하면서 상업에 대한 논의는 점차 새로운 국면을 가지게 되었다. 이른바 Wallerstein, Frank 등을 거쳐 Emmanuel, Amin 등에 의해 주장된 이 이론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와 발전에 있어 국제교환 즉, 무역의 역할이 양과 질의 두 측면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 하였다. 그들은 국제무역을 기초

로 하는 세계 분업체제를 세계 자본주의라 보고 그것을 형성하게 하는 기본 동인으로써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이란 시각을 제시한 바 있다.³⁵⁾ 이러한 관점은 결국 Sweezy 적 입장에서 Dobb 적인 비판을 흡수 하였다고 보여지며, 그렇다면 국제무역 즉, 상업은 세계자본주의의 형성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에 있어서도 전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문제는 원격지 무역을 위시한 국제교역에 이들 사회가 익숙치 않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교역빈도가 극히 저조하다는 데 있다고 보았다. 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상품의 순환은 교환보다는 경제외적 강제에 의해 수행되었다. 촌락 공동체나 장원간의 교환은 거의 없었고 자급자족 경제가 지배적이었으며 원격지 무역은 여전히 한계적이었고 교역상대국에게 새로운 생산양식을 주입하는 필수적 요인이 되지 못하였다.³⁶⁾

앞서 Fei-Ranis는 농업봉건주의의 발전은 무역 및 상업활동의 확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상품화폐 경제의 농촌 침투는 tree-star 체제라는 새로운 하부구조의 성장을 낳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국내시장의 확대과정은 大塚久雄이 제시한 '국지적 시장권론'의 구도와 유사하다고 보여진다.³⁷⁾ 이처럼 Fei-Ranis의 농업발전이론의 핵심은 바로 중심부와 주변부를 연결하는 수송선인 tree와 도시와 주변 농촌으로 구성된 단일한 국지적 지역경제권인 star를 상정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가 발전하여 하나의 자기 완결적인 국민경제를 이루었다고 본 데 있었다. 이처럼 처음에는 지배적인 생산양식이 아니었지만 국내시장의 확대에 따라 자본주의가 점차 지배적이 되었으며 그에 따라 산업혁명을 거쳐 산업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순로롭게 이루어진

34) M. Dobb, ed. 'ibid' 참조할 것. 이외에는 다음 논문이 있다.

Kosminsky, 'The English Village in the Thirteenth Century.' (Moscow, 1935)

35) Samir Amin,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A Critique of the Theory of Underdevelopment, Translated by Brian Pearce.' (Monthly Review Press, New York and London, 1974)

36) Samir Amin, 'ibid' pp. 85~90

37) 大塚久雄外, '西洋經濟史講座' (岩波書點, 1960)

것이다. 실제로 중세독일을 예로들면 서부에서는 4~5시간, 그리고 동부에서는 6~8시간의 보행반경을 갖는 수많은 세포들로 구획되어졌음이 Hidebrand, Schmoller 등에 의해 관찰되었던 것이다.³⁸⁾ 이들 세포에서 도시는 핵을 구성하였는데, 도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농촌은 그들이 팔 농산물을 시장에 가지고 가서, 저녁까지 돌아올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다고 한다. 이러한 구도는 역시 비교적 공업화된 촌락을 농업적 색채가 강한 촌락이 둘러싸고 사회적 분업관계에 의한 약간의 국지적인 재생산권을 이루었고 이들 지역내에 소시장이 개척되어 국지내의 사회적 분업을 결합하였다는 영국 England 지방과 화란의 일부지방의 사례와도 부합하였다.³⁹⁾

이러한 tree-star 체제를 통한 발전은 곧 국지적 소시장들의 통합과정이므로 내부적으로 산업적 중산자층의 양극분해가 그리고 외부적으로 국민경제적 규모의 국민적 산업(national industry)의 형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大塚에 의하면 이러한 국민경제는 그 성립전제로서 사회적 분업의 배타적 체제였으며, 따라서 일정한 자급자족적 경향과 함께 분업으로 인하여 국민적 규모가 balanced national economy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⁴⁰⁾ Fei-Ranis도 앞서 농업중상주의 단계의 발전은 무엇보다 ①분업 ②경제조직의 변화 ③접촉에 의한 학습, 그리고 ④국민의식의 고취 등의 네가지 필수요인 충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결국 산업자본주의로의 이행문제를 통하여, Fei-Ranis는 이를 실행시키려는 후진국들에게 이러한 네 조건을 tree-star 체계의 활성화를 통하여 충족함으로써 진정한 국민경제를 형성할 수 있다는 발전전략을 제시 하였던 것이다.

3. 농업발전 전략을 위한 타당성 검증

Fei-Ranis는 농업중상주의에서 산업 자본

주의로의 이행을 바로 W. W. Rostow가 지칭한 도약단계(take-off stage)와 같은 과정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바 있는 tree-star 체계의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영농방법과 투입물이 실현되어 이른바 농업혁명(Agrarian Revolution)이란 지속적인 기술진보가 일어나고,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국민경제는 이제 지배적인 부분이 새로운 산업자본주의로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후진국의 경제구조가 아직도 전자본주의 단계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산업자본주의로의 발전과정에 대한 검증은 후진국 개발전략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농업발전의 고전적인 사례로서 그들은 특히 영국에서 이루어진 농업혁명과 삼분할제도(tripartite division of labor)를 제시하였다. 한편 산업자본주의의 성립은 농·공간의 이중구조의 성립 및 전개를 조래 하였으며 이는 농업 생산력의 급속한 증대에 따른 농업잉여의 창출이 결국 새로운 비농업 부문으로의 노동력 이전을 가능케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 위에서 Fei-Ranis는 지금까지 정제된 이중구조 위에서 내포적인 성장(enclave growth)만을 갖는 후진국에게는 tree-star 체제를 통한 농·공의 병진적 발전이 필수적이며, 더구나 '접촉을 통한 학습'은 농업과 비농업, 그리고 농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농업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역할을 한 이차대전 후 일본 및 대만의 경험은 값진 것이었다.⁴¹⁾ 또한 이러한 농업발전 과정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며; 결국 이러한 시간문제에 대한 인식이 저개발국 정부 및 행정기관에게 주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성

38) H. Van Werveke, 'The Rise of towns,' p 5(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III, Economic Organization and Policies in Middle Ages, Camderidge Univ. Press, 1965)

39) 大塚久雄外, '前掲書' 참조.

40) 大塚久雄編, '後進資本主義の展開過程' 第一章 後進資本主義とその諸類型' pp 7~10(アヅア經濟研究所)

급한 몇가지 정책으로 농업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미봉적으로 흔히 취해지는 저개발국들의 농업경시적 경제정책들은 이러한 점에서 비판되어진다. 이상에서 볼 때 Fei-Ranis의 농업발전 이론은 실효성이 없는 일시적인 처방이 되고만 미시적 정책들 보다는 농업잉여(agricultural surplus)를 적절히 배분해 줄수 있는 tree-star 체계의 건설, 전통농업의 자생적공업화(자생적농촌공업화)및 농업연구의 중요성 강조등의 원칙적인 거시적 방향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Fei-Ranis는 식민지하에서 만들어진 내포적 성장(enclave growth)유형을 분석 비판하고, 이러한 취약한 사회간접자본과 낙후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tree-star 체계'의 건설을 통한 농업 근대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유형도 내재적 발전에 따른 고전적 유형과 함께 저개발국에서 흔히 찾아 볼수 있는 이식형적인 유형도 존재한 것처럼, 'tree-star' 체계 그 자체가 바로 농업 근대화의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미 Kosminsky 등이 고전적인 농업발전 과정에서 지적한 것처럼 농민경제 내에 tree-star 체계의 존재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성격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tree-star 체계의 수립이 유효할수 있는 것은 그것이 자생적 농민 경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때에 한할 것이며, 만약 위로부터 하향적으로 추진될 때에는 독점자본의 소농지배를 더욱 급속히 초래하는 절경도 될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⁴¹⁾

다른 한편 Fei-Ranis의 이러한 농업발전이론은 일방향적인 '계기적 발전론'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비판되어진다. 오늘날 대부분의 농업발전 이론들은 후진국의 경제발전을 영국에 의해 개시되고 프랑스, 미국, 독

일등의 국가가 이를 뒤쫓은 바 있는 획일적인 고전적 과정을 뒤늦게나마 추적하여 따라간다는 이른바 일방향적 계기적인 과정으로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이러한 고전적인 발전과정은 결코 획일적으로만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 이르러 그러한 현실의 세계사적인 불균등 발전 현상은 한편으로는 국민경제의 여러 유형에 대한 탐구로⁴²⁾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공존으로 파악되고 있기도 하다.⁴³⁾ 그러한 두 측면에서 이들의 농업발전 이론은 그 한계를 갖는다고 보여진다.

IV. 결 론

이 연구는 Fei-Ranis의 역사적 시각에서 본 농업발전 이론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논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경제사 및 경제학설사적인 내용을 포괄하여 서유럽 근대경제사를 그들 특유의 이중 구조주의(dualism)적 입장에서 모형화 하였다. 시대 구분에 있어 Fei-Ranis는 근대 서유럽경제의 발전을 '운용양식'이란 지표에 의하여 농업봉건주의, 농업중상주의, 산업자본주의, 기술적 자본주의의 네 경제발전 단계로 나누었다. 한편 Fei-Ranis는 농업 중상주의를 이행기로 보고, 특히 이러한 도약 과정은 상업을 통한 무역발전의 확대, 노동생산성의 증대 및 그것을 가능하게 한 tree-star 체계의 건설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중상주의란 용어가 상업 자본주의적 성격을 그대로 내포하였다는 점에서 Dobb-Sweezy 논쟁의 성과에 의하여 그러한 유통주의적 견해는 비판될 수 있을 것이지만,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론에 의할때 국제무역은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을 실현하는 기본 동인이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내부적

41) Gustav Ranis and John C. H. Fei, 'ibid' p 399

42) 金俊輔 '農業經濟學序說' (고려대학교 출판부, 1967)

43) 大塚久雄編, '後進資本主義の展開過程'을 불거.

44) 湯淺起男, '第三世界の經濟構造' 참조. (趙容範譯, 新評論社, 1976)

화폐경제의 확산과 tree-star 체계를 통한 농업 발전은 국지적 소시장을 통합하여 국민경제를 건설하는 과정일 뿐더러, 산업자본주의로의 도약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는 농업혁명과 삼분할제도가 이루어지며 아울러 '농·공간의 이중구조가 성립'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농업 발전을 저개발국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시적 경제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접촉에 의한 학습'을 통한 '농·공간의 병진적 발전'을 도모하여야만 한다고 그들은 주장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저개발국은 수세기 동안에 이루어진 서유럽의 경험을 단지 수십년만에 이룩해야만 하는 취약점을 갖는다는 Fei-Ranis의 지적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들은 tree-star 체계가 갖는 질적 측면을 간과하였으며, 후진국의 농업발전 과정이 서구의 고전적인 과정의 그것을 답습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도 비판된다. 그러나 이러한 Fei-Ranis의 접근은 오늘날 농업발전 이론이 갖지 못한 새로운 모색, 즉 '역사적 교훈으로부터의 개발전략 도출'이란 점에서 대체로 전전한 것이었다. 또한 저개발국의 농업문제에 관한한 그들은 대체로 정확한 판단을 가지었다. 그러나 역사인식에 있어 질적측면의 무시와 지나친 모형화가 낳은 문제점은 이들 이론의 현실 적용의 한계를 보여준다 할 것이다.

引用文獻

1. Amin, Samir. 1974.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A Critique of the theory of underdevelopment. Monthly Review Press. New York, London.
2. Dobb, Maurice, 1963.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Lowe & Brydone (Printers) Ltd, Thetford, Norfolk.
3. Dobb, Maurice, ed. 1954. The Transition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A Symposium by P. M. Sweezy, Maurice, Dobb, H. K. Takahashi, Radney Hilton and Christopher Hill.
4. Frank, Andre Gundre. 1978. Dependent Accumulation and Underdevelopment. The Macmillan Press LTD. London and Basingstoke.
5. 權丙卓. 1982. 一般經濟史. 博英社. 서울.
6. Hayami, Yujiro and Ruttan, Vernon W. 1971. Agricultural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The Johns Hopkins Press. Baltimore and London.
7.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1966. Selected Articles in the Economics of Underdevelopment. Selected Articles II.
8.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6. Selected Articles in Agricultural Economics. Selected Articles VII.
9. 金綜炫. 1979. 經濟史. 經文社. 서울.
10. Kosminsky, E. A. 1935. The English Village in the Thirteenth Century; Rents and Labor Services etc. Moscow.
11. Meier, Gerald. M. 1976. Leading Issues in Economic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Inc. New York.
12. 大塚久雄編. 1973. 後進資本主義の展開過程. アジア經濟研究所. 東京
13. Postan, M. ·Hist, F. R. 1937. The Chronology of Labour Services.
14. Ranis, Gustav & Fei, John. C. H. 1961. A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LI
15. Ranis, Gustav & Fei, John. C. H. 1969. Economic Development in Historical Perspectiv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LIX
16. Werveke, H. Van. 1965. The Rise of Towns.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III. Economic Organization and policies in Middles Ages, Ed. by M. M postan E. E. Rich & Miller. Cambridge Univ. Press.